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손해보험재팬과 니혼코아손보, 내년 4월 경영통합 예정

□ 일본 손보업계 3위인 손해보험재팬과 5위의 니혼코아(日本興亜)손해보험이 내년 4월을 목표로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손보업계의 대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음.

○ 양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은 약 2조 700억엔(FY07년도 기준)으로 미츠이스미토모 해상그룹HD, IO손해보험, 닛세이도와 등 3개사가 통합되어 설립되는 신생사와 손보업계 1위의 도쿄해상HD에 버금가는 규모가 되면서, 손보업계 판도는 현행 6개사에서 보험료 수입만 2조엔을 넘는 세계 탑 10 수준의 손해보험 빅 3로 재편될 예정임.

손해보험재팬과 니혼코아손보 비교

	손해보험재팬	니혼코아손보
설립년도	- 2002.7	- 2001.4
FY07 수입보험료	- 약 1조 3,700억엔(업계 3위)	- 약 7,000억엔(업계 5위)
지분구조(08.9)	- 대주주 美사우스이스탄불에셋매니지먼트가 6.77%를 보유	- 대주주 美사우스이스탄불에셋매니지먼트가 18.66%를 보유
종업원수	- 1만 9,541명(08.12)	- 9,565명(08.3)
강점	- 미즈호파이낸셜그룹과 친밀 - 제일생명보험과 포괄 제휴 중	- 특정 재벌에 속하지 않는 독립계 - 지방은행 방카슈랑스에 강

자료 : 각 사 홈페이지 및 毎日新聞(2009.3.12) 참조

□ 양사는 새로운 주주회사를 설립하고 시스템 공동개발 통해 경영 효율화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경영통합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짐.

○ 작년 하반기 이후 심화된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신차판매가 급격하게 침체되어 주수입원인 자동차보험 실적하락 징후가 뚜렷해지고, 추가급락과 금융상품 손실이 보험사 수익을 압박하면서, 손해보험재팬의 경우 FY08에 520억엔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양사 모두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.

○ 이번 통합으로 양사는 기업 M&A나 시스템면에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경영 규모를 갖추게 되어 경기하강과 인구 고령화로 축소되고 있는 국내 손보시장에서 탈피해 해외시장 및 생보시장 등 타사업 분야로의 확대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.

(손해보험재팬 · 니혼코아손보 홈페이지, 일본경제신문 3/12, 후지산케이비지니스아이 3/13)